

대한기계학회

# 기술자체에 대한 다양한 평가시스템 구축되길...

21세기는 자의든 타의든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시대'이다. 자본·노동시장이 개방되면서 기업활동의 국가적 경계가 흐트러지게 되었다. 그런데 지적재산권만은 더욱더 보호대상으로 되어 있어 나라간 기술력 괴리는 점차 커질 전망이다. 이런 경제적 세계화는 인류의 진정한 공동 커뮤니티의 형성을 목표로 설정된 범세계 경제시스템으로 알려져 있지만 어떤 결과를 인류에 줄 것인지 아직은 알 길이 없다.

그런데 이런 세계화를 촉진시킨 원인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그 전개과정과 무관하지 않다. 원자력기술, 항공기, 그리고 우주개발 등 소위 거대 기술이 국가적 사업으로 소수의 국가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거대기술에 대한 수요의 포화와 함께 기술의 추세가 전자과학기술로부터 드디어 정보과학기술에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은 기술은 한 걸음 나아가서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우리 나라는 정보과학기술을 토대로 인류미답의 새로운 기술사회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기술의 창출을 위하여 미래기술 개발에 연구비를 비롯하여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 소위 정부입장에서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기술개발 계획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거대기술의 개발 과정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는 과학기술개발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의 시간을 갖지 못하였다. 추상적인 표현이지만, 학문분야의 연계성과 시간적인 과학기술의 진화 과정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적 기술개발의 철학이 마련된 것이 아닌가하고 걱정하는 바이다. 기술개발의 본질은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과 영역을 통한 과학기술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국가, 사회가 인식해주길 바란다. 선택과 집중의 뜻이 어떤 분야에는 집중투자하고 다른 분야는 제외시킨다든가, 연구자 개인에도 이와 같은 논리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견잡을 수 없는 많은 부작용을 만들어 낼 것이다.

기계기술의 중요성은 현시점에서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내 과학기술의 분야별 인력 구성 면에서도 기계기술의 획기적 발달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립대학의 법인화, 대학간의 통합, 그리고 학과조정 등 대학 인력양성구조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조짐이다. 정부, 기업도 이와 같은 변화의 추세를 경제적 가치관만으로 바라보지 말고 진정한 인력양성의 실효성이 달성될 수 있는 방법을 대학에 능동적으로 제시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새해에는 기술개발에 있어 기술 자체에 대한 다양한 평가, 국가적인 과학기술인의 양성에 관한 국가적 시스템 구성에 관하여, 과학기술인이 중심이 되어 토의되는 원년이 되길 기원한다. ㉔



글 | 신현동 \_ 대한기계학회 회장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교수